

# LOCAL

2025년 9월 5일 금요일

## 장성, 지역균형발전 로드맵 실현 ‘착착’

### 영광군민 화합의 장 마련 5~7일 영광스포티움 일원

영광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다.

4일 영광군에 따르면 제49회 영광군민의 날은 5일부터 6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영광스포티움 일원에서 개최된다.

5일 오후 6시30분부터 영광 문화예술의 전당에서는 광풍 노래자랑, 7일에는 제1회 광풍 마라톤대회가 영광스포티움 일원에서 열린다.

5일은 성화제와 및 봉송, 음면 입장식, 기념식, 화합한마당(단체줄넘기, 여자팔씨름, 여자승부차기, 한마음릴레이) 종목별 체육경기가 진행되며, 6일은 배드민턴, 축구, 파크골프, 육상, 실버 축구 친선경기 종합시상, 폐회식, 성화 소화 순으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동안에는 슬라임체험, 모루인형 만들기 등 총 16개의 체험부스와 워터파크랜드, 이동식 동물원, 위드즈 페스티벌 등 체험행사와 푸드트럭이 준비돼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 먹거리를 제공한다.

2700여명이 참가하는 이 대회에는 이봉주 선수가 참가하며, 댄스 가수 공연, 경품추첨,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pg98@gwangnam.co.kr

### 신안, 친환경 전기버스 확대 총 22대 운영 ‘군 단위 최대’

신안군이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안 갯벌의 보존을 위해 친환경 전기버스 운영을 본격 확대해 눈길을 끈다.

4일 군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지역내 경유 연료 공영버스(총 75대)를 친환경 전기버스로 연차적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군은 전기버스가 10년 운행 기준 디젤버스 대비 연료 및 정비 비용 절감 효과가 뛰어나고, 운행 중 미세먼지나 질소산화물 같은 배출가스가 없는 친환경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교체 추진했다.

올해는 하의, 신의, 장산 3개 면에 전기버스 8대를 추가로 구입해 운행함에 따라 지금까지 총사업비 43억원을 들여 총 22대의 친환경 전기버스를 보유하게 됐다.

이로 인해 군은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전기버스를 운행하며 환경 보전의 선두 주자로 올라서게 됐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 농촌협약·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계획 김한중 군수 “11개 읍·면 동행·성장 완성”

장성군이 지역 균형 발전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구체적인 로드맵 실현에 나가고 있다.

4일 군에 따르면 가장 주목되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으로 농촌공간 국립축산식품부 ‘농촌협약’으로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따른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군은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299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28억원을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시행에 투입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확충과 문

화·복지·체육 등 분야별 생활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촌 중심지에 거점시설을 집중적으로 구축하고 주민 교육 등 ‘소프트웨어’를 강화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노후된 ‘장성호관광지’를 사계절 관광 명소로 만드는 ‘장성 원더랜드 조성사업’도 이목을 끈다.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선정돼 사업비 300억원을 확보한 군은 내년부터



좌측부터 스마트팜 조성 부지, 장성 원더랜드,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

2029년까지 예술공원, 복합문화공간, 어린이 테마파크,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사계절 관광특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청년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391억원 규모 삼계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과 주민 숙원을 해결한 270억

원 규모 장성읍 ‘대창지구 도시재생사업’도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다.

귀농귀촌 인구 유입의 전초기지 역할을 맡을 북이면 ‘귀농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건립은 2026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부권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높이는 ‘농기계대사업소 남부분소’는 지난 6월 준공했다. 이로써, 권역별로 분소·서부·북부·남부농기계대사업소 구축을 마무리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축령산 관광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산림복지·휴양시설 조성을 통해 숙박,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축령산 관광을 다각도로 활성화할 방침이다.

김한중 군수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균형 발전 정책 기초를 이룬 것이 농촌협약 체결 등 대규모 사업 선정·추진으로 이어지고 있어 뜻깊다”며 “11개 읍면 어느 한 곳도 소외되지 않는 ‘동행’과 ‘성장’을 통해 장성 발전의 퍼즐을 완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해남지역 내 600여농가가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밭고구마와 풀고구마의 수확을 시작했다.

### “최고의 간식” 명품 해남고구마 맛보세요

#### 밭고구마·풀고구마 품종 수확

명품 해남고구마가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갔다.

4일 군에 따르면 지역 내 600여농가가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밭고구마와 풀고구마의 수확을 시작했다.

해남의 고구마 재배 면적은 1964ha로, 연간 생산량은 3만4000t에 달한다. 이는 전남 전체 재배 면적의 10%를 차지하는 규모로,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 주산지다.

해남고구마는 7월 말 조기재배용 밭

고구마인 진లు미를 시작으로, 이달부터는 호풍미 등 밭고구마와 호박고구마의 중간정도 식감의 풀고구마 품종이, 10월부터는 달고 부드러운 호박고구마 품종이 차례로 수확된다.

해남은 게르마늄과 철분이 다량 함유된 황토 땅과 풍부한 일조량, 바닷바람이 어우러져 명품 고구마가 자라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특히 해남고구마는 지난 2008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농산물 제42호’로 등록됐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 강진 ‘불금불파’ 하반기 관광객 끌어 모은다

### 오늘 재개장...체험·이벤트·상설 프로그램 등 확대

강진군이 주말 지역 먹거리를 즐기고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은 ‘불금불파(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를 통해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4일 군에 따르면 5일 문화·관광·상권 활성화 프로그램 ‘불금불파’를 재개장한다. 하반기 불금불파는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과 이벤트를 한층 강화했다.

재개장 당일 행사장 내 2만원 이상 영수증을 제시하면 ‘퐁 없는 퐁’ 이벤트를 참여할 수 있다.

강진사랑상품권과 지역 특산물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이 제공된다. 현장에서 펠

쳐지는 즉석 퀴즈와 게임 이벤트도 마련돼 방문객들의 즐거움을 더한다.

추석맞이 특별 행사도 준비됐다. 10월에는 고향을 찾은 가족 대상 무료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 10월 4일에는 주민이 함께하는 추석맞이 노래자랑이 열려 군민과 귀향객들이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만든다.

하반기에도 하멜양조장과 연계해 방문객이 행사장 내 2만원 이상 영수증을 제시하면 하멜촌맥주 한 잔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주민이 참여하고 운영하는 병영 장터문화한마당, 할머니장터, 플리마켓이 열려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상설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불금불파

텐트촌은 격주(둘째·넷째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되고, 청년창업존 팝업스토어에서는 청년창업자들의 제품 홍보와 판매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업사이클링 공예체험을 통해 환경과 예술을 접목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병영상인 홍보관은 옛날 상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상권 홍보의 장이 된다.

강진원 군수는 “강진 불금불파는 지역 상권과 청년 창업을 연결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소통의 장이다”며 “이번 재개장을 통해 강진의 볼거리가 다 시 활기를 되찾고, 많은 분들이 강진을 방문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이진복 기자

## 나주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국·도비 452억 투입

### 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집행

나주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총 584억원 규모의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국·도비 452억원을 확보해 시민 지원 대책을 신속히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복구계획은 주택, 상가, 농가 등 침수 피해 시민들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본촌천 등 재해 취약지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359억원 규모의 개선복구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7월 17일부터 19일까지 나주에는 최대 542.2mm(금천면 기준)의 폭우가 쏟아져 사유시설 74억원, 공공시설 79억원 등 총 15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중앙합동조사단의 현장 조사 결과 나주 전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서 국고 지원금이 당초 285억원에서 94억 원 늘어난 379억원으로 확대됐다.

특히 본촌천 등 3개 개선복구 사업에 359억원이 반영돼 단순 원상복구를 넘어 재해 취약 요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시민 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재난지원금도 대폭 늘었다.

침수 주택 53가구는 기존 35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2배 늘었으며 소상공인 58건은 기존 300만원 외에도 전남도도 구호기금 200만원, 위로금 500만원이 추가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추석 전 시민 생계 안정을 위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0억원을 예비비와 성립 전 예산을 활용해 9월 중순까지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나주-조환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 DECK ROAD

예견 친환경 데크로드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

YEKUN, 주식회사 예견

I·B·O·M Prunus w3aLO

본사 경기도 파주시 신촌3로 1 T.031-943-6114 F.031-943-6698 E.yekun@yekun.com  
디자인연구소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78-16 2F T.02-324-1140 F.02-324-3270 E.yekun@yekun.com

www.yekun.com